

## 지역미래견인기업 사례(15) 규난

### -전기를 통하여 가정의 고충도 지원 -

- 2018년으로 창업 70주년을 맞는 동사는 100년 기업으로 목표로 하여 중장기 계획을 책정중임
- 동사는 현재 11개사의 그룹회사를 가지고 그룹 전체로 1,000명을 넘는 직원들을 거느리고 발전공사에서 일반 가정공사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임
- 현재는 지방유력 기업으로 성장한 동사는 규난(救難)이라는 사명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가정의 고충을 지원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는 한편, 에너지 절감의 중심적인 존재로서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

○ 규난은 1948년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 시에서 사업을 개시, 2018년으로 창업 70주년을 맞음

- 전기 관련을 중심으로한 각종 사업에서 성장을 지속, 지역을 대표하는 사업자로 성장함

○ 사업의 출발은 시내 주변의 옥내선 전기공사로부터였음

-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부흥에 따라 규슈 역내에 전력망이 확대되는 가운데 송전공사, 통신공사, 발·변전공사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었음

#### □ 발전공사에서 일반 가정공사까지

○ 지역의 전력회사인 규슈전력과 함께 성장을 지속, 1968년에는 규슈전력의 송전선공사 본점등록업자로 됨

- 본점 등록업자는 전력회사가 각 현의 지점단위로 지정한 등록업자에 비하여 서열이 높음

- 구로카와 히로유키(黒川浩之) 사장은 지역의 협력사업자로서 위치를 확실하게 하는 사건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음

○ 그 후도 고객으로부터의 요망에 부응하는 가운데 토목, 배전, 발·변전, 통신, 공조관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혔음

- 송전에서 배전, 발·변전, 내선까지 단독회사로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 회사는 드물다고 함


○ 현재 각 사업이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다름아닌 이제까지의 축적임

- 그리고 이들 다수의 사업을 1개소에 청부할 수 있는 것도 동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음
- 현재 11개사의 그룹회사를 가지고 그룹 전체로 1,000명을 넘는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음
- 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, 이를 지탱하는 인재육성에 주력해왔음
- 동사에서는 「브라더·시스터제도」라고 하는 직원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
- 젊은 직원과 선배직원이 일대일로 콤비를 이루어, 업무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일만이 아니고 사적인 고민 등도 포함하여 상담을 해줌
- 기능전승 면에서 또 이직을 막는 의미에서도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

## □ 100년 기업을 목표로

- 70년을 맞는 동사는 현재 중장기계획을 책정중임
- 상세한 내용은 2018년 가을에 밝혀지게 되는데, 사장 방침으로서 100년 기업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
- 또한 경영목표로서는 10년후에 매출액 200억엔, 경상이익율 10%을 제시하고 있음
- 2017년도 실적은 매출액 131억 엔, 경상이익율 5%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IT화 추진, 업무의 효율화가 불가피함
- 또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로방식에 대응한 근로방식개혁에도 착수할 계획임
- 앞으로 성장을 위해 현재 동사가 주력하고 있는 것이 개인고객을 목표로 한 리테일 사업임
- 2010년에 발족한 「규난대」라고 명명한 영업부대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
- 규난이라는 사명이 나타내는 바와같이 가정의 고충을 어떻게 해서라도 대응하고 싶다는 문구로 하고 있음
- 유통전화(모두 전기로)나 리빙의 개장, 에어컨 설치공사나 집의 개조까지 동사의 사업영역 외까지도 커버한다고 함
- 공공공사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개인용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, 사업의 기둥을 삼고 대응하고 있음
- 사업이 발족된 첫 년도에 10억 엔 정도였던 매출액이 현재는 약 3배로 증가, 이익 면에서도 동사의 사업에 크게 공헌하고 있음
- 현재 미야자키현과 후쿠오카현 내에 60명을 넘는 전임 스태프들이 있어, 규난대의 로고를 단 차가 각지를 돌고 있음

## □ 에너지 절감의 중심적 존재

- 현재는 지방유력기업으로 성장한 동사에 대하여 지역으로부터도 기대가 큼
  - 에너지 절감의 중심적인 존재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그 하나임
- 동사에서는 사원 중 8명이 미야자키현의 지구온난화방지추진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음
  - 현재 위원 수는 50명 정도로 매우 높은 비율로 본사 소재지인 미야코쥬시가 에너지 삭감에 적극적인 점도 있어, 행정과 보조를 맞추어 에너지절감기업으로서 지역공헌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
- 자사 내 사업부문에서도 에너지절감사업추진본부가 2018년 봄에 발족
  - 중소기업의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절감에 관련된 제안,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
- 동사는 2017년도, 2018년도 경제산업성의 에너지절감 상담지역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채택되었음
  - 에너지 절감 전문가가 고객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상담에 대응하고 있고, 각각에 최적의 제안을 해줌으로써 지역의 에너지절감에 공헌하고 있음
- 창업 70주년을 맞는 2018년도는 전 사원과 가족 총 500명 이상이 모여, 대운동회와 미야자키 시내 리조트 시설에서 간담파티, 거래처와의 감사제 등 큰 행사를 앞두고 있음
- 또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동사 단독으로는 처음으로 대규모 식수사업을 결정하고 있음
  - 미야코노쥬 시내에 규난의 숲이라고 하여 벚꽃나무 등 광엽수를 약 2헥타르의 면적에 심을 계획임
- 미야자키 현에서 태어나 크게 성장한 동사, 지역에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면서도 현 내외에서 새로운 사업의 꽃을 피도록 다음 도전이 계속되고 있음. 

### 【기업정보】 오엑스엔지니어링

▽소재지=미야자키현 미야코노쥬시 도호쿠쥬 5070

▽설립=1948년 3월

▽사장=구로카와 히로유키(黒川浩之)

▽매출액=131억 8,000만원(2017년 6월기)

### < 참고자료 >

경제산업성, 『지역미래견인기업』 2018년 8월 7일 <https://meti-journal.jp/p/295/>